

경제

■ 日 대지진 한달...광주·전남 산업계 희비

천일염·미역·다시마 '품귀'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돼 가면서 광주·전남지역 산업계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본의 전력 공급 사정이 불안정해지자 건전지 수요가 크게 늘고, 방사능 오염을 막는 요오드가 다량 함유했다는 소문에 천일염과 미역·다시마가 떠어난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전력산업인 자동차와 금형, 광산업은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지만 장기 이익이 기대된다. 반면 일본에 부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과 여행·항공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10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과 업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일본 수출업체 300여개를 대상으로 피해 조사한 결과, 모두 15개 업체에서 140만달러 가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에 화훼류를 수출하는 A업체는 오는 5월까지 월 5만달러의 수출계약을 맺었던 바이어가 3월말에 이를 취소했고, 감태를 수출하는 B수출업체도 2월까지 순조롭게 수출해오다 3월 들어 수출량이 급격히 줄면서 월 10만달러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전남의 한 제조업체인 C사도 일본에서 제품 선적이 늦어지면서 생산라인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반면 천일염과 미역·다시마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수요가 크게 늘었다.

단일면적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신안군 증도 태평양전 천일염을 가공 판매하는 태평소금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2주 만에 30kg짜리 묶은 소금이 동났다.

태평소금은 전화 4대가 온종일



10일 오후 신안군 증도면 태평양전 소금판매장에서는 일본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우리나라 해역을 오염시킬 것이라는 걱정과 방사능 오염을 막는 요오드가 천일염에 많이 함유됐다는 소문이 겹치면서 주문이 폭주, 천일염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신안 태평양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부품·여행·항공업계 '직격탄'

불이 날 정도로 주문이 밀려오지만, 재고불량이 없어 주문을 받지 않은 지가 보름 정도 됐다고 한다. 20~30kg 이상 대포장 천일염 주문 판매는 언제 재개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건전지와 건전지 제조설비 전문업체인 광주 본촌산단의 로케트전기도 건전지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로케트전기는 올해 전체 수출 목표액 3500만달러 중 일본 수출 목표액이 1300만달러인데 이번 지진 사태로 일본에서만 1000만달러어치가 추가로 주문이 들어왔다. 이는

일본 지진으로 전력이 끊어지고 파괴된 심각한 전력부족 문제가 발생하면서 건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과 직접 교역하고 있는 우리로광통신·피피아이·유펜·신한포도니스 등 광주지역 대표 광통신업체의 경우, 당장은 수출입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일본의 통신기반시설 복구 수요로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식품업계도 규모로는 그리 크지 않으나 반사이익을 얻었다. 즉석 조리 가능한 식품과 생수를 중심으로

로 그동안 미미했던 대일본 수출량이 2~3배씩 늘었을 뿐 아니라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여행·항공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10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잠정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인은 26만7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6% 가량 감소했다. 일본인들의 여행심리가 얼어붙은 탓이다. 당국자들은 올해 일본인 입국객이 작년 대비 최고 30%, 10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항공업계 역시 일본 노선 수요가 큰 폭으로 떨어져 수백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조업합의' 금호타이어 노사 또 갈등

使 매출 손실액 139억 訴제기 방침에 勞 "합의정신 훼손" 반발

파업 후폭풍이 금호타이어에 불어치고 있다. 가까운 여론에 밀려 노사가 조업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임금가지지 않아 또다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10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워크아웃 중 파업과 직장폐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던 금호타이어가 지난 1일 노사 합의로 정상 조업에 들어갔지만, 파업 사태 처리와 임단협 재교섭 요구에 대해 노사간 입장차가 너무 커 갈등이 재발하고 있다.

사측은 최근 파업 과정에서 정문을 파손한 노조원 19명을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광주 광안경찰서에 고소했다. 사측은 앞서 노조 간부 등 7명을 이미 고소한 바 있다.

사측은 또 지난달 18일 광주지법에 노조원 28명을 상대로 4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노조 간부들의 자택

및 통장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내치고 있다.

사측은 추가로 지난달 19일부터 31일까지 노조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매출 손실 139억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낼 방침이다.

사측 관계자는 "노사가 대화하기로 했지만, 기존의 잘못된 행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며 "잘못한 것은 분명히 판단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대화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했는데도 사측은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합의정신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평화적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이처럼 파업사태 처리 문제뿐만 아니라 임단협 재교섭에 대한 입장도 첨예하다.

그동안 노조는 ▲퇴직금 보전방안 ▲소음성 난청 관례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식사교대 수당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호봉 재조정 ▲타임오프 논의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 등을 요구했다. 이 중 핵심은 지난해 전임 집행부가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으로, 임금이 대폭 삭감된 데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며 임단협 재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정리하고 대신 임금을 삭감했고, 정년퇴직만 만큼 도급화(아웃소싱)해야 타사와 경쟁할 수 있다며 노조의 재교섭 요구를 일축했다. 노사 대화는 하지만 임단협 재교섭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내 600대 기업 올해

사상 최대 115조 투자

국내 600대 기업의 올해 투자규모가 115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0일 발표한 '600대 기업 투자 실적 및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600대 기업(2009년말 기준 매출액순)의 2011년 투자규모는 지난해보다 9.7% 증가한 114조5532억원에 달했다. 시설투자와 R&D투자가 작년보다 각각 8.3%, 17.1% 늘어난 95조7942억원, 18조8590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자를 크게 늘리려는 이유는 세계경제 회복이 아직 불확실한데도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행투자와 신성장 동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말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작년 대비 4.4% 증가한 71조 4654억원, 비제조업은 19.6% 늘어난 43조 1878억원으로 조사됐다. 비제조업의 투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올해 투자확대를 계획한 이유로 기업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행투자(31.6%), 신성장산업 등 신규사업 진출(22.7%) 등을 꼽았고, 앞으로 기업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외부경제변수로는 국내의 경기회복 여부(46.0%)와 지속적인 규제 완화(18.3%) 등을 지목했다. /연합뉴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 신입직원 39명은 지난 8일 봉산농협 딸기 선별장에서 농업체험을 시작으로 농협에 첫발을 디뎠다. 이들은 이날 선별장에서 포장 및 운반 작업 등 농가 일손을 거들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신안군 방조제 공사 제한입찰 '적법'

2심서도 승소... 개·보수공사 본격화 될듯

'입찰자격 제한 논란'이 일며 법정다툼을 벌였던 '신안군 500억원대 방조제 개·보수공사'가 1, 2심에서 모두 신안군이 승소하면서 공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일 신안군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는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5일 신안군 방조제 개보수공사 관련,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의 공종간 수반성·속속성·시공기술상의 어려움·과거

발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석공업자로 한정 것이 위법하거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지난 1월24일과 25일 총 57건 580억원대 '방조제 개·보수공사'를 긴급입찰로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석공업면허를 보유하고,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방조제 개보수공사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지역 의무 공동계약 시공참여비율 40% 이상)로 자격을 제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회적 기업' 5년간 세무조사 면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앞으로 5년간 면제된다. 모범납세자는 대출, 신용등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되며, '올해의 성실납세 대상'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지난 6일 국제행정위원회를 열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세행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올해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 납세담보 면제 혜택도 종전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르면 6월에 '올해의 성실납세 대

상'을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납세자의 날(3월3일) 행사 때마다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우대 혜택이 부여되는 장기계속성실 중소기업은 사업기간 요건(수도권 30년, 지방 20년)을 완화하거나 성실성 판단 기준을 조정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조사모범납세자 선정에서도 납부세액 기준 등을 완화해 중소기업 선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로또복권 (제436회)

Table with columns: 당첨번호, 2등번호, 순위, 당첨금, 당첨자수. Shows lottery results for the 436th draw.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무등빌딩' (Mudeung Building)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contact information, and a testimonial from a satisfied customer.